

-(으)ㄴ/는 것 같다

~인 것 같다 — 추측, 생각

사실이 아니라 받은 인상을 말합니다. 단정적으로 말하면 주제넘게 들릴 수 있어서, 한국어에서는 이 표현을 매우 자주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 것 같다	오다 → 오는 것 같아요
동사, 과거	-(으)ㄴ 것 같다	오다 → 온 것 같아요
형용사	-(으)ㄴ 것 같다	좋다 → 좋은 것 같아요
있다 / 없다 류	-는 것 같다	재미있는 것 같아요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것 같아요
미래 또는 근거 없음	-(으)ㄹ 것 같다	비가 올 것 같아요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사형 체계. 동사, 현재: -는 것 같다 (오는 것 같아요). 동사, 과거: -(으)ㄴ 것 같다 (온 것 같아요). 형용사: -(으)ㄴ 것 같다 (좋은 것 같아요).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.

눈앞에 근거는 있지만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을 때 씁니다. 현관에 젖은 우산이 있으면 비가 온 것 같아요.

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포함해 의견을 부드럽게 말할 때도 씁니다.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는 실수를 인정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고, 이 옷이 예쁜 것 같아요는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칭찬하는 방법입니다. 학습자는 이 표현을 덜 쓰는 경향이 있어 의도보다 통명스럽게 들리곤 합니다.

■ 예문

- 1 밖에 비가 온 것 같아요.
- 2 그 사람은 지금 자는 것 같아요.
- 3 이 영화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.
- 4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
- 5 어머니가 지금 저녁을 만드는 것 같아요.
- 6 이 옷이 저한테 좀 큰 것 같아요.

■ 비교

-(으)ㄹ 것 같다
미래이거나 직접적인 근거가 전혀 없을 때는 -(으)ㄹ을 씁니다. -(으)ㄴ/는은 이미 보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.
비가 온 것 같아요. (땅이 젖어 있음) / 비가 올 것 같아요. (하늘이 어두움)

-겠-
-겠어요는 눈앞의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고, 것 같다는 생각을 거친 의견입니다. 둘 다 단정을 피하는 말이지만 것 같다가 더 신중하게 들립니다.
맛있겠어요. (맛있어 보임) / 맛있는 것 같아요. (맛있다고 생각함)

단정적인 서술
그냥 단정해서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, 한국어에서는 확실한 것도 완곡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모든 곳에서 것 같다는 말을 빼면 말이 딱딱하게 들립니다.
이 영화가 재미있어요. (재미있다는 단정) / 재미있는 것 같아요. (재미있다고 느낌)

■ 주의

- ✗ 이 영화가 좋은 것 같아요.
○ 이 영화가 좋은 것 같아요.
좋다는 형용사이므로 -(으)ㄴ을 씁니다. -는은 동사와 있다 류에만 씁니다.
- ✗ 어머니가 저녁을 만드는 것 같아요.
○ 어머니가 저녁을 만드는 것 같아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사형 체계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았어요. — ‘비가 온 것 같다’라는 뜻으로 쓴 경우
○ 밖에 비가 온 것 같아요.
과거는 같다가 아니라 관형사형 안에 넣습니다. 온 것 같아요는 비가 왔다는 추측이고, 오는 것 같았어요는 그때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았다는 뜻입니다.